



문서번호	질병예방과-4809
결재일자	2015.4.2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생명건강팀장	질병예방과장	보건소장	
임호진	김연화	한경숙	04/29 김경희	
협조				

성동구 자살예방자킴이와 함께하는

준사례관리자 (마음이음친구) 운영계획

2015. 4.



성 동 구

(질병예방과)

성동구 자살예방지킴이와 함께하는

준사례관리자 (마음이음친구) 운영계획

15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'준사례관리자'라는 명칭 제시 및 제반 규정을 통일함. 신규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성동구 내 자살 잠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게 지지체계 역할을 수행해온 마음이음친구 활동가를 준사례관리자로 명칭 변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함.

I

추진근거

-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- 7241(2015.3.10) - 2015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매뉴얼
- 2015 성동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계획(질병예방과-3478호)

II

추진배경

- 자살 고위험군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자 자살 잠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준사례관리자가 적절한 심리정서지원(말벗 서비스 등)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
- 우울증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살잠재위험 대상자에게 지역보건 복지자원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준사례관리자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

III

활동현황

준사례관리자(마음이음친구) 총 인원		자살잠재위험 매칭 대상자	
성동노인복지관	10	성동노인복지관	9
옥수동 성당	11	옥수동 성당	11
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	5	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	매칭 예정
총 26명		총 20명	

IV

세부내용

구 분	내 용	
원 칙	▶ 지역사회 자원 활용	
	▶ 시민참여 활동 적극 지원	
목 적	▶ 자살 잠재 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과 고위험군으로의 진행 억제	
사 업 수 요 대 상	▶ 보건소 이용자 중 대면상담 통해 발견된 잠재위험군	
	▶ 센터 평가에 의해 위개개입 대상이 아닌 지속관리대상군	
	▶ 취약지역 중 잠재적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	
수행 방법	대상자의 발견	▶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이 자살위험성평가 대면상담 실시 후 준사례관리자에게 매칭
		▶ 준사례관리자가 대상을 발견할 경우 준사례관리 동의받음
	상 담	▶ 지킴이에 의해 센터로 의뢰됐으나 대상자가 위기개입수준이 아닐 경우 준사례관리자에게 매칭
제 공 내 용	양적 측면	▶ 주1회 이상 전화발신, 월1회 이상 가정방문 및 문자발송 ▶ 준사례관리자 1인당 5명 이내 서비스 대상 배치
	질적 측면	▶ 심리정서지원(말벗되기 서비스 등) 및 연계 활동 서비스
지 원 내 용	▶ 준사례관리자 1인당 월2만원 지급 통일함	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
명 칭	자살예방지킴이 마음이음친구	자살예방지킴이 준사례관리자	
주요 변경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월 4회 가정방문 ▶ 지킴이 1인당 인원제한 없음 ▶ 대면접촉 1건당 5천원으로 맡은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그에 준하여 지급 (예: 대상자2명 * 대상자 1명당 4번 대면접촉 = 4만원 지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 1회 이상 전화발신 ▶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▶ 월 1회 희망문자 발송 ▶ 지킴이 1인당 5명 이내 대상배치 ▶ 지킴이 1인당 월2만원 지급통일 ▶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인력에 대한 추가 교육과 훈련 실시 	<p>변경 일자</p> <p><u>15. 04. 01</u></p>

V 기대효과

- 자살위험 잠재 대상에 대한 관리운영을 일원화 함으로써 준사례관리자에 대한 질적관리가 강화되어 자살예방사업 활성화
- 준사례관리자를 양성함으로써 자살 잠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고위험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지역보건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제공
- 준사례관리자 자살예방사업 활동을 통해 퇴직 후 사회활동이 단절 되신 분들의 사회 활동을 장려. 끝.